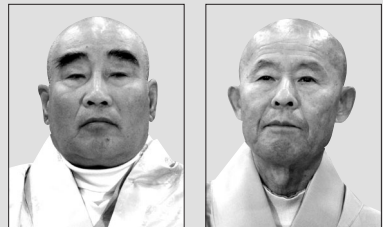


종정협의회 11대 회장 대승 스님, 3대 이사장 월인 스님 취임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1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태민안 경제발전기원 제11대 회장 석대승 대승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승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승 스님 월인 스님

이날 법회에는 종정협의회 명예이사장 지산 스님, 세계 불교연합법왕정 고문 해공 스님, 원로위원 정암 스님, 송산 스님, 법광 스님, 상임위원장 정봉 스님, 조계종 前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해 50여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1천 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청봉 스님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신임 이사장과 회장에 대한 선임패와 종정협기와 직인이 전달됐다.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승가종 종정)은 취임사를 통해 "불국토의 염원을 담아 해외 포교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1대 회장 대승 스님(선불교조계종 종정)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고 국태민안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홍사성 주간 불교언론인상 본지 신중일 기자 최우수상

제 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12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가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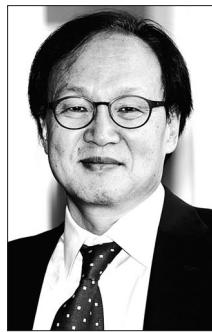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가 주관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대상으로는 KBS부산, 부처님오신날기획 '향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가 선정됐다.

특히,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은 "30여년간 불교계의 신문·방송·TV·잡지 그리고 저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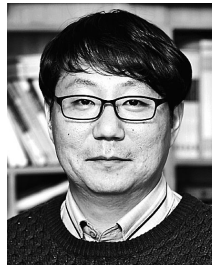
일 민족운동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언론인상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이, 특별상은 불교신문 신재호 기자의 '기획연재 성보 빛으로 전하다'와 아시아경제 기획취재팀의 위안부 보고서 55에게 각각 돌아갔다.

특히,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은 "30여년간 불교계의 신문·방송·TV·잡지 그리고 저서를



홍사성 주간



신중일 기자

통해 정법의 단간지주를 세우는데 전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KBS 월드 부처님오신날 특집 '산사에서 하루'가, 우수상으로는 BBS 불교방송 '툼비니동산이 각자 차지했다. 신문 부문 최우수상은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가,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의 '연중기획 조계종 개혁20주년 끝까지 않은 여정'에 각각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연재는 "한국 사회 전반에 인지도가 높은 만해 스님의 궤적을 추적한 수작으로 기사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뛰어나며 사실성까지 가미된 우수한 연재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제4회 사진공모전 개막



천태종 제4회 사진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이 11월 20일 서울 인사동 라레갈갤러리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심사를 맡은 덕화 스님, 박봉수 한국불교사진협회장과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금상 수상자 김도운 씨, 은상 유승배·강한중 씨, 동상 김주현·문영숙·김수용 씨, 가작(5명)과 장려상(5명) 수상자들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사진전은 수상작과 입선작 등을 중심으로 24일까지 열린다. **김주필 기자**

군중교구 계룡대 호국사 교육관 낙성



군중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16일 계룡대 호국사 교육관인 '명진관'을 신축 낙성했다.

'명진관' 신축공사 금액은 군예산 14억원과 호국사 불사금 1억원 등 총 15억원이 소요됐으며 2층 234평에 어린이법당, 다목적실 및 군승법사실, 카페 등 현대적 포교시설이 들어섰다. 낙성법회는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의 법문과 국방시절본부 충청시찰단 공군 김종범 대령의 경과보고, 테이프 절단 및 교육관 시설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11월 11일 창종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2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사물놀이 상산이운, 오공양 작법, 육법 공양 등이 이어졌다.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은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을 이어간다는 목표로 명진 법운 스님이 2011년 11월 11일 창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 주 문



동국대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청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11월 17일 동국대에서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2014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박영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11월 10일 2014년 우수논문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입식 아닌 질의응답식으로 수업 참여 유도”

서울승가대학 설립한 둔촌절 주지 범하 스님

출재가가 함께 공부하는 사립 승가대학이 서울에 설립됐다. 서울 둔촌절(주지 범하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송파구 둔촌절에서 '서울승가대학 헌관 제막식'을 봉행했다.

학장 범하 스님은 "재가자들이 참여하는 승가대학이라 불린 것은 우바이와 우바새가 포함된 4종 승가를 의미합니다. 요즘 승가교육 과정 개편이후 전통교육을 배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한글 교육이 정

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문은 계속 중요합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커리큘럼에 대해 스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티베트 드레퓀 승가대학에서 인명논리학을 전공했죠. 이 학문은 모든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법을 알아야 경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범하 스님은 "제 강의는 주입식이 아닌 철저한 질의응답 형



김광식 교수

을 취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죠"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승가대학은 교계 언론을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내년 3월 9일경 개강한다. 한편 범하 스님은 직지사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02)414-1222 **김주필 기자**

부천 소사경찰서 경승실, 17일 순직 경관 위령제



민생 치안을 위해 순직한 경찰관들을 위한 위령제가 마련됐다. 부천 소사경찰서 경승실(실장 성인)은 11월 17일 판내 법당에서 '제24회 전사순직 경찰관 위령제'를 봉행했다. 순국선열을 맞아 열린 이날 위령제는 소사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부천 대덕사 회주)을 비롯해 김영일 소사경찰서장, 양승현 소사경찰서 법무회장(경위)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불기협 2014 불교기자상 선정

취재보도부문 본지 신중일·이나은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2014 불교기자상에 본지 신중일·이나은 기자가 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기협은 11월 17일 '2014 불교기자상 심사와 장학생 선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기자상은 △대상(선원비 기자상)에 법보신문사 권오영 기자의 '조계종 개혁 20주년 - 끝까지 않은 여정' △기획해설 부문에 불교신문 이준엽·홍다영 기자의 '영화 명랑을 통해 본 임진왜란과 의승군' △취재보도 부문에 현대불교신문 신중일·이나은 기자의 '봉축특집-한국불교 포교합시다' △특별상에는 법보신문 김규보 기자의 '바람의 고원 티베트'를 가다 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불교기자상 시상식과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1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만해 사상 연구자 결집 계기로”

제2대 만해학회회장 선출된 김광식 교수



김광식 교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화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만해학회의 2대 학회장으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가 선출됐다.

11월 18일 서울 송의여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만해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표하는 학회를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는 그동안 만해 스님과 관련된 연구논문 24편을 펴낸 관련 전문가다. 김광식 교수는 학술지 <만해학보>를 재발간하며, 인제 백담사, 홍성군, 성북문화원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문화정신에 연구가 집중돼 있다면 독립운동과 불교계 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선거문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2014년 11월 25일 종정 추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이신 향운스님께서 고산 큰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종정스님의 추대는 종정추대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며 본 종단의 종정스님은 설재 정광 큰스님이므로 종정추대위원회의 추대가 없었던 고산 큰스님은 종정스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향운스님께서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낙선 후 지속적으로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본인이 현재까지도 총무원장이라고 불교신문에 광고하는가 하면 별도로 종회를 구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단에서는 종단의 질서와 종도 여러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운스님께서 스스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총무원장직의 사칭이 날로 더하고 이에 동조하는 종도들도 그 기세를 꺾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향운스님께 대하여 체탈도첩의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향운스님께서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현재 종단의 승려가 아님에도 또다시 종정추대식을 하겠다며 광고를 하였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2014년 11월 25일 종정추대식은 향운스님의 해종행위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시고 이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2014년 11월 25일 종정추대식에 참석하는 등 향운스님의 해종행위에 동조하시는 종도들에 대하여는 종단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탈도첩의 징계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합장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설 재 정 광

원로원장 창해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문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진덕, 수진, 수경, 각운, 성호, 해담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원, 명운, 현수, 지광, 상도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회 총명, 선운, 무공, 현수

총 학 원 장 옥천

포 교 원 장 선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운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남교구원장 마명

경북북구원장 성죽

총 무 부 장 해진

교 육 부 장 유상

포 교 부 장 성우

조 사 국 장 최석주

법규위원장 무상

재산심의위원장 자연

경북교구원장 법진

제주교구원장 법원

대전충남원장 자성

강원교구원장 성암

고시위원장 자광

의 전 실 장 석해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북교구원장 경오

울산교구원장 지광

재 무 부 장 천수

복 지 부 장 원해

사 무 국 장 수천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